



7월 FOMC: 시장기대 부합, 증시 영향 제한적

25bp 인상, data-dependent한
향후 정책 결정 고수,
시장기대 부합한 결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상한 5.25~5.50%로 결정. 성명문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 및 정책 효과를 평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data-dependent한 정책 결정 의지가 지속적으로 강조

당사 전망 및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회의 결과였다는 평가. 기자회견 내내 추가 금리인상 관련 질문에 향후 물가, 고용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회의마다 판단하겠다는 응답으로 일관했던 점은 6월 FOMC와 스탠스 차이 없음. 모든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에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점도표 상 추가 인상 여지 남았음
에도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은 오히려 dovish했다는 생각

그런데 점도표 상 1회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을 고수한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는 생각.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진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고도 했음. 그런데 고용, 물가지표가 불안정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됨. 금리수준 유지 질문에는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진축 스템스 노력 이어나갈 것이고, 그 가운데 인내 필요하다는 언급

코어물가 중요, 노동시장/임금
안정이 핵심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으로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는 평가. 6월 CPI 정보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되는 트렌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에너지/식품물가 하락에 따른 헤드라인 안정은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안정에 도움. 혹해 곡물협정 파기에 대해 예의주시 중. 향후 물가 안정에는 코어 물가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노동시장 및 임금 안정이 핵심.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은 정상화되는 중이라고 평가

경기침체 없이 물가안정
달성 가능하다는 파월의장 견해

경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데이터를 볼 때 침체에 빠지지 않고 노동시장과 경기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 경기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2%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 확신하긴 어렵지만 위원회에서도 회복탄력성에 대해 이야기 중이며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하지 않는 중

**채권금리 하락, 주가지수는 보합.
DOW, RUSSELL2000지수는 상승**

기대에 부합했던 FOMC와 경기 낙관에 대해 주식시장은 risk-on을 계속 반영할 것으로 보임. 미국채 10년, 2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각각 2bp 하락. S&P500은 전일대비 약보합 수준(-0.02%)에서 마감했고 NASDAQ 지수도 0.1% 하락하는데 그침. 오히려 DOW 지수와 RUSSELL2000 지수는 각각 전일대비 0.23%, 0.62% 상승, risk-on이 일부 경기민감주와 중소형주로 확산 시사

증시의 경우 장중 인플레 숫자가 얼마까지 내려와 유지되어야 승리를 선언할 것인지는 기자회견 질문 대답에 장중 소폭 하락했음. 파월의장이 2%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인하를 하긴 어렵고, 2025년이나 되어야 2% 물가가 달성될 것 같다는 응답에 S&P500지수가 음전하기는 했으나, 기자회견 종료 이후 낙폭 되돌림

주식시장은 실적발표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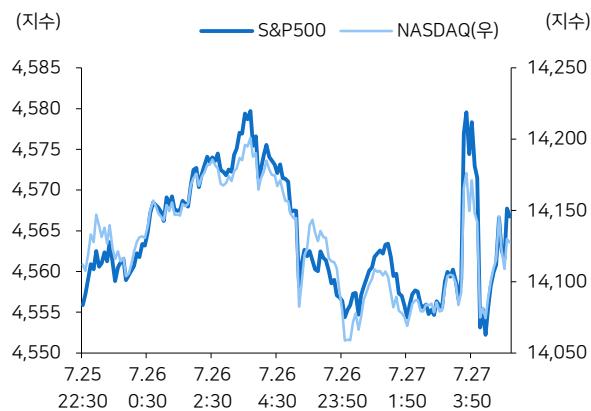
S&P500은 FOMC보다 실적발표에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장마감 후 실적발표에 에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늘 3.7% 하락 마감. 오늘 장마감 후 실적발표가 예정되었던 메타는 장중 1.4% 상승, 시장기대 상회한 결과에 에프터마켓에서 6% 상승 중. EPS와 매출은 각각 2.98달러, 320억달러로 각각 시장기대(2.91달러, 311.2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일일, 월간 활성 사용자, 사용자당 평균 매출 모두 시장기대를 상회, 광고 매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11% 성장,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기대 상회(320억~345억 달러 vs 예상 313억 달러)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증시 하방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당사의 상향된 미국경제 전망, 물가 안정 궤적 전망을 고려(7월 24일자 이승훈의 경제脈 참고). 경기반등 기대에 기반한 risk-on의 확산이 투자사이클에 있는 업종 및 종목에 수혜를 줄 것으로 봄. 빅테크는 밸류 부담이 있으나 AI, 반도체도 투자사이클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주도주 역할 지속하며 상승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

**달러 방향 중요, 오늘밤 내일 있을
ECB, BOJ 회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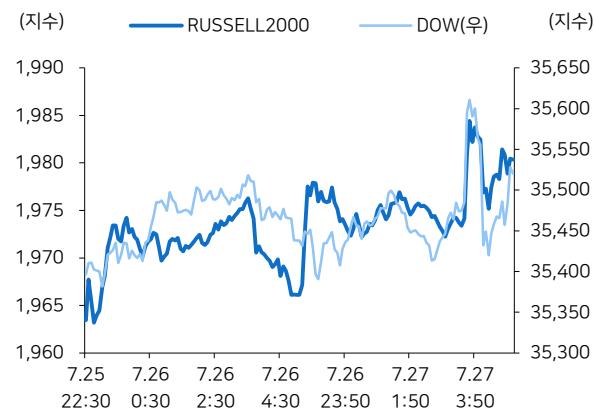
주식시장 전망의 리스크는 달러. 달러 약세 지연에 따른 시장 상승 속도 둔화 가능성. 7월 FOMC가 기대에 부합하며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소는 BOJ, ECB 통화정책 기대. 양 지역 통화정책 기대가 dovish 해지면서 최근 달러 약세 되돌림. 오늘밤 ECB(27일), 내일 BOJ(28일) 회의 예정. ECB는 최근 7월이 마지막 금리인상이라는 기대 형성, 향후 추가인상 관련 발언에 주목. BOJ는 YCC 정책에 수정은 없을 것이나 YCC 수정 가능성 여부 언급이 중요. 관련 언급 부재시 엔화 약세 지속

그림1 S&P500, NASDAQ지수 약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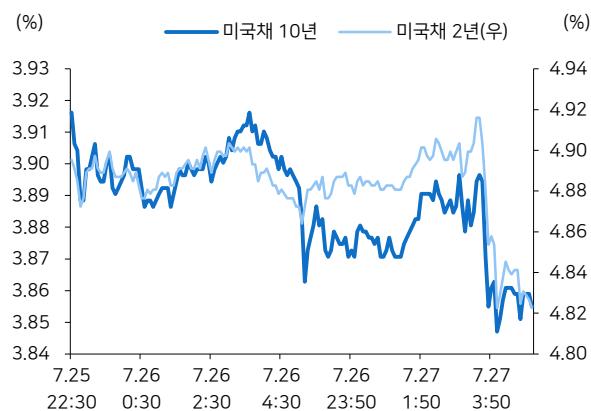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DOW, RUSSELL2000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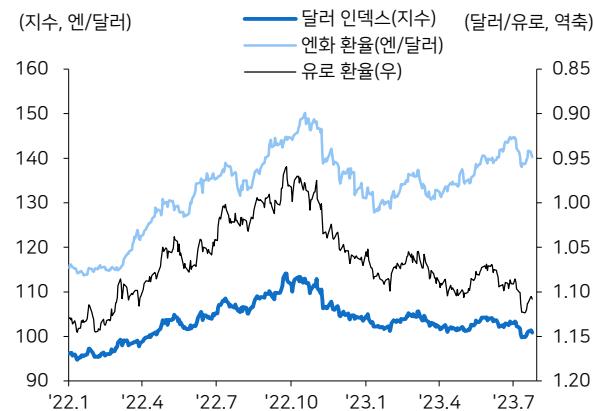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채 10년물, 2년물 금리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FOMC 전까지 엔화, 유로화 절하에 달러 약세 둔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